



광남문화체육재단은 지난 1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장애인양궁 선수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윤홍숙 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뒷줄 왼쪽 네 번째)과 김란숙, 김홍필, 이명구씨를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문화체육재단은 14일 보성 청학정에서 장애인양궁 선수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윤홍숙 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뒷줄 왼쪽 다섯 번째)과 김홍매, 고일석, 이동현씨를 비롯한 협회·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남문화체육재단, 장애인 양궁 선수들의 꿈에 힘 보탠다

광주·전남 선수 6명에 총 300만원 지원…훈련·생활 안정 뒷받침  
전국대회 메달리스트부터 유망주까지…지역 체육인재 성장 응원

광남문화체육재단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활시위를 놓지 않는 광주·전남 장애인 양궁 선수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했다.

광남문화체육재단(이사장 윤홍숙)은 지난 13일 광주국제양궁장과 14일 전남 보성 청학정에서 장애인양궁 선수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선수 6명에게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생계와 훈련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광주·전남 장애인양궁협회로부터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자를 선정했다. 선수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됐다.

광주에서는 김란숙(한전KPS), 김홍필(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이명구(한전KPS) 등 3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 규모 대회에서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며 지역 장애인 양궁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란숙은 지난해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혼성 리커브 2인조 금메달 등 금 1개, 은 1개, 동 2개를 수확했다. 2024년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여자 리커브 2인조 정상에 올랐다.

김홍필은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 남자 컴파운

드 2인조 금메달에 이어 올해 제2회 여주시장애인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명구 역시 올해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남자 컴파운드 2인조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제4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중호 광주장애인양궁협회장은 “장애인양궁 선수들은 훈련과 대회 참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며 “선수들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광남문화체육재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지원이 선수들에게 큰 격려이자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피홍매(장흥), 고일석(보성), 이동현(장흥) 등 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여자 리커브 전남대표 피홍매는 생계와 자녀 양

육을 책임지면서도 활시위를 놓지 않고 있다. 식당 근무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남자 컴파운드 전남대표 고일석은 가족 부양과 의료비 부담을 안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전과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기량을 입증했다.

남자 리커브 전남대표 이동현(전남장애인양궁협회 사무국장)은 척수손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올해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었고, 전국장애인체전 리커브 펑킹 6위와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동메달 2개를 기록했다.

이동현은 “지역 선수들에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번 나눔이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선수들의 경기 성적뿐 아니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활시위를 놓지 않는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윤홍숙 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선수들이 운동에 더욱 전념하고 희망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체육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2026년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무등산동부사무소, 취약계층 나들이 성료

어르신 100명…생태복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2026년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탐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폐광 및 석탄산업의 영향으로 환경·보건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어르신에게 국립

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 속 심신 활력을 되찾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9월 29일과 10월 1일 두 차례 진행했다.

지난 1일 진행된 2회차 프로그램에서는 화순 폐광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여수 오동도 일원에서 해양 요트 체험을 진행해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전의 가치를 오감으로 느끼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국립공원 서부본부, ‘조선 유람기’와 함께하는 무등산 팸투어

의병장 고경명의 ‘유서석록’ 무대  
무등산 규봉암·화순적벽 등 탐방  
문화재 역사·인문적 가치 재조명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는 지난 13일 전남광주 기자단과 역사·문화 전문가를 초청해 ‘조선시대 유람기 따라 떠나는 무등산 여행’ 팸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팸투어는 국립공원 내 우수한 기록유산인 조선시대 유람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단순한 자연 탐방을 넘어 지역의 깊이 있는 역사·문화·경관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의 배경이 된 조선시대 유람기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고경명의 ‘유서석록’이다. 고경명이 1574년(선조 7) 4월 20일부터 5일간 무등산을 유람하며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유서석록’의 실제 발자취를 따라 무등산의 서석대와 임석대, 규봉암, 지공너덜, 화순적벽, 식영정 등 주요 명소를 둘러봤다.

문화재 명소로 지정된 무등산 지공너덜은 무등산 정상 아래, 해발고도 약 1000~1100m 사이의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는 지난 13일 전남광주 기자단과 역사·문화 전문가를 초청해 ‘조선시대 유람기 따라 떠나는 무등산 여행’ 팸투어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유서석록’의 실제 발자취를 따라 무등산의 서석대와 임석대, 규봉암, 지공너덜, 화순적벽, 식영정 등 주요 명소를 둘러봤다.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폭 150m에 이르고 상부 경계가 아래로 내려간 허 모양의 형태로 무등산의 대표적인 너덜이다.

이번 팸투어를 통해 수 백 년 전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으며 자연의 변화와 소중함을 깨닫고 산봉우리와 계곡에 깃든 역사적 사연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통해 국립공원이 살아 있는 역사·문화 공간임을 경험했다.

육관수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광역사업부장은 “이번 팸투어는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인문학적 스토리를 융합해 탐방객들에게 차별화된 감동과 가치를 선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립공원의 숨겨진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채롭고 품격 있는 탐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김화정 전남낙농농협 회장,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금융사기 예방 공로’ 경찰청장 감사장

전남낙농농협 직원이 수상한 고액 현금 인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 1억53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전남낙농농협은 본점 김화정 회장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장은 박송희 순천경찰서장이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 고객이 전남낙농농협 본점을 찾아 정기예탁금 1억5300만원을 중도해지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수상한 정황을 느꼈다. 이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좌이체를 권유했지만, 고객은 이체할 계좌가 없으며 수표 지급을



요구했다.

이같은 답변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회장은 즉시 남도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 확인 결과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으며, 신속한 신고와 대응으로 고객의 거액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환경정화·취약계층 지원 등 봉사  
24명 회원 활동…지역사회 나눔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금 220만원을 쾌척했다. 기탁식에는 최순지 회장, 박순임·조지숙 부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 신수정 북구청장에 고향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008년 8월 구성, 현재 24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북구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정화 활동, 밀반찬 나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천사무로급식봉사 등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북구에 고향사랑기부금 220만원을 쾌척했다.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순지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